황홀한 파리의 밤, 부티크 호텔에서

루브르, 에펠탑을 좇아 바삐 걸음을 옮기던 낮의 수고를 씻어줄 파리 최고의 부티크 호텔 3선.

호텔 쥘 에 짐

잘생긴 청년 쥘과 짐, 그리고 쇼트커트가 사랑스러운 여인 카트린이 당장에라도 달려 나올 것만 같다. 이곳은 마레 지구의 대표 부티크 호텔인 쥘 에 짐Hotel Jules et Jim이다. 영화감독 프랑수아 트뤼포가 1961년 세상에 내놓은 전설적인 작품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15미터 길이의 인상적인 복도를 맞닥뜨린다. 파리에서 열렸던 사진 작품 전시들을 한데 모아 보여주거나, 지역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거는 미니 갤러리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이곳을 죽 따라 걸어가면 곧 별이 좋은 창가, 멋진 작품들, 유니폼 대신 라코스테 폴로 셔츠와 수페르가 운동화를 신은 스태프들과 마주한다. 이들의 모습은 쥘 에 짐에 젊고 활달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8층 건물과 2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쥘 에 짐 호텔의 23개 객실은 쥘, 짐, 지붕 아래 다락방, 듀플렉스 그리고 하이맥스(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LG의 하이맥스HI-MACSⓒ 의자를 비치했다)의 5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그 외에도 쿠스미 티Kusmi Tea, 메종 프랑시스 커정Maison Francis Kurkdjian의 향초, 고급 스포츠 클럽 르 클레이Le Klay 등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네치아에서 사용하던 수상 택시를 개조해 투숙객만 예약 가능한 센 강 샴페인 크루즈와 빈티지 시트로엥Citroen 차량으로 시내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아르 에 메티에르Arts et Métiers 지하철역과 걸어서 3분 거리이므로 이곳을 베이스캠프 삼아 파리 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니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위치다.

LOCATION 11 Rue des Gravilliers, 75003 Paris **WEB** www.hoteljulesetjim.com

호텔 그랑 아무르

요즘 가장 '힙'하다는 10구에 새로 문 연 호텔 그랑 아무르Hotel Grand Amour는 9구에 위치한 호텔 아무르Hotel Amour의 자매 호텔이다. 프리 오스만 양식의 5층 건물에 파리의 모든 것을 집약한 듯한 이 공간은 파리의 유서 깊은 레스토랑 라 쿠폴La Coupole을 그대로 옮겨온 1층 다이닝 라운지부터 생제르맹의 클럽 카스텔Castel에 사용했던 모티브를 이용해 제작한 카펫, 메종 키츠네의 공동 설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로엑Loaec이 디자인한 호텔 스태프의 유니폼, 에르메스 어메니티 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미끈한 디테일을 선보인다.

LOCATION 18 Rue de La Fidelite, 75010 Paris
WEB www.hotelamourparis.fr

호텔 르 크레용

1950년대풍 가구와 고급스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드리운 공간. 이곳은 엘레강시아 호텔스Elegancia Hotels 그룹의 대표 주자 호텔 르 크레용Hotel Le Crayon이다. 강렬한 색채와 데코, 패턴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층마다, 그리고 26개 객실마다 콘셉트를 달리해 꾸몄다. 그래피티, 잉크 스케치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는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예술가의 아틀리에처럼 감각을 자극한다. 자매 호텔 크레용 루주 호텔Crayon Rouge Hotel도 최근 문을 열었다.

LOCATION 25 Rue du Bouloi, 75001 Paris
WEB www.hotelcrayon.com

글·사진 **맹지나**(파리 통신원) 에디터 **강은주**